

서평

移住者の地域起業による農山村再生
(이주자의 지역기업에 의한 농·산촌 재생)

簡井一伸·嵩 和雄·佐久間 康富(츠츠이 카즈노부·카사미 카즈오·사쿠마 야스도미),
2018, 東京: 筑波書房, 62쪽.

韓柱成*

2020년 한국의 귀농가원수가 17,447명(귀농인 12,570명)으로 귀촌가주(345,205명)의 약 1/2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귀농이 귀촌보다 적다는 것은 그 만큼 도시민이 귀농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생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주자의 눈에는 지역민이 볼 수 없는 지역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해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를 추구하면, 도시보다 나은 자연환경과 농·임·어업의 비전·발전가능성을 구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만들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이 책은 농·산촌 재생방안을 이주자, 행정, 농·산촌의 측면에서 각각 파악한 내용으로 다섯 개 장에 실어 두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농·산촌에 있어서 이주자의 생업 만들기)에서는 일본의 귀농·귀촌의 이주지향 변천을 살펴보고, 연령층별 이주자 구성비의 변화와 그들이 이주해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기 위한 생업을 선정하는데 起業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산촌에서는 생활의 糧食을 얻는 생활상 필요한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의 주체로서 자신이 이미지화하는 시골생활을 구현하는 자기실현의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커뮤니티에 잠재되어 있는 지역자원과 결부시켜 지역생업 만들기를 행하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고 하며, 행정도 이주자가 농·산촌에서 계속 살도록 그 틀을 만들

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起業을 중시여 기며 사업성, 지역성, 사회성이 이주자 생업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고 그 사례들을 들었다.

II(이주자의 생업 만들기의 파악방법)에서는 이주자의 생업 만들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4명의 구체적인 사례로 농업기술연수생에서 농가 민박카페를 개업한 이주자는 지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또 본인의 농장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농원레스토랑은 지역자원을 재발견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역어민으로서 지역과 이주자를 연결시키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미역을 가공·판매하는 起業을 일으킨 이주자를 소개했다. 끝으로 말린 해삼제조회사를 繼業으로 받아 경영자원만이 아닌 지역의 신뢰관계도 승계한 사례도 들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생업의 사례에서 지역과의 관련성 국면을 체험, 연수, 취업, 계업, 起業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생업 만들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생업 만들기는 첫째, 起業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고, 둘째 복수의 국면이 병존한다고 기술해 이 장에서는 이주자의 시점에서 지역의 생업 만들기를 밝혔다.

III(이주자의 생활과 생업 만들기의 지탱법)에서는 이주자가 농·산촌에서 생활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도청과 이주지의 시·읍·면 행정기관, 지역 만들기 협의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회나 NPO, 地緣적인 기존의 지역커뮤니티의 4단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와카야마(和歌山)현을 대상으로 행정과 지역커뮤니티도 아닌 종합적인 지역 만들기 활동에 대처한 새로운 지역운영조직이 이주자를 지역에 관여시켜 나가는 과정을 기술했다. 그리고 이주자의 생업지행에서는 사례지역의 이주자 생활 만들기가 지역의 생업 만들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와카야마현을 대상으로 생업 만들기를 이주자에게 촉구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이 장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조정자(coordinator)의 시점에서 지역의 생업 만들기를 밝혔다.

IV(지역 만들기 전략으로서의 이주자에 의한 지역의 생업 만들기)에서는 지역에서의 생업 만들기 파악방법으로 취업, 계업, 起業이 농·산촌과 이주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지역에서의 계업과 起業의 성립과 그 특징에 대해 기술했다. 그리고 이주자 측의 기업이 아닌 농·산촌 측의 지역 만들기 전략에서 이주자에 의한 지역의 생업 만들기를 위치 지워 새로운 지역커뮤니티는 활동내용의 종합성, 기존 지역커뮤니티와의 보완관계성, 혁신성을 특징으로 삼아 지역주민 당사자 의식을 갖고 활동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큰 지역 만들기 전략과 그 속에 이주자의 생업 만들기를 전략적, 체계적으로 위치 지워 이주자를 공평하게 선별해 새로운 지역의 가치창조를 방향지어야 생업 만들기도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산촌에서 이주자를 선별적이고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난제라고 할 수 있다.

V(농·산촌 재생에 있어서 이주와 생업 만들기의 전망)에서는 먼저 지역주민에 의한 생업 만들기의 가능성은 이주자가 일터를 확보하도록 생업 만들기를 도와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둘째, 주거문제로 빈집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의뢰하고 그 정보를 축적해 이주자에게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농·산촌은 양보다는 질적인 비전을 갖춘 이주자가 지역에 생업 만들기를 하도록 전략을 바꾸는 의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감수자의 ‘이주자에 의한 생업의 의미와 의의’에서는 귀농·귀촌인구의 수보다도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이주자의 지역적 파급효과를 다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생업을 지역자원이나 특산물을 이용한 일(수입을 얻는 일만이 아님)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지역과의 유대를 합친 의미로 파악해, 일은 생활의 양식이며,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실현이고 지역과의 유대는 지역으로부터의 배움과 공헌이라고 파악했다. 또 농·산촌에서 起業을 하려면 지역으로부터 배움, 지원, 지역에 대한 보답 등이 이루어지므로 지역커뮤니티와 무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업은 국가에서 지역커뮤니티까지 경직되지 않게 이어받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이주자의 생업 만들기가 지역 만들기 그 자체라며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고, 또 지원기관의 인재제도의 마련과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 과제라 했다.

이 책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를 모식화하고 의미 부여해 이주자가 지역에 정착해 생업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그림 3의 표현방법 중 이주자가 농·산촌에 이주하는 것을 생활의 양식과 자기실현으로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 책은 한국의 농·산·어촌에서 이주 起業者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자 생업 만들기를 지역 만들기의 전략 속에 위치지어 새로운 지역의 가치를 창조하도록 권장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기에 관련 연구자 및 행정기관에서 이를 활용했으면 한다.

교신: 韓柱成, 0550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신천동, 파크리오)

Correspondence: Ju-Seong Han, Parkrio, Shincheon-dong, 435 Olympic-ro, Songpa-gu, Seoul city, 05507 Korea

최초투고일 2021년 08월 03일
수정일 2021년 08월 03일
최종접수일 2021년 08월 03일